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장 추진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전주시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를 구현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확대하기 위해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셔틀버스, 콜택시) 확충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수요자인 장애인단체들과 협의해 평화주공1·2단지과 한옥마을 등 교통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 14곳을 선정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했다. 시는 올해 시내버스 승강장 14곳을 저상버스 승강장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달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제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위성 GPS를 활용해 장애인 셔틀버스와 콜택시,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보다

세밀한 배치가 가능해졌다. 또, 기존의 전화예약만 가능하던 방식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오후 해소 및 이용 당일 즉시 차량을 원하는 바로콜 수요자들에게 좀 더 많은 차량을 배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현재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셔틀버스 3대와 콜택시 34대, 저상버스 101대 등으로, 시는 올해 운영된 지 10년이 경과한 셔틀버스 1대를 교체하고, 콜택시 8대와 저상버스 17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와 시

설관리공단, 민원인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주기적으로 셔틀버스를 탑승해 구간별, 시간대별 탑승객을 확인하는 등 실수요에 맞는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고객이 만족하는 이지용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과 7월 고객설명회를 개최하고, 예약일정과 예약시간 등 예약시스템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을 수용·개선해나가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0월중에 고객설명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통약자는 물론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대중교통 환경을 갖추고, 더불어 시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와 시



전북과학축전 개막식

지난 2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2016 전북도 과학축전 개막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도교육감이 드론을 작동해 보고 있다.

농산물 흡친 50대 구축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농촌마을에서 농산물을 흡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6일 농가에서 삼승적으로 농산물을 흡친 혐의(절도)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2일 자정께 군산시 대야면 한 주택에서 마늘 5집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군산과 익산, 김제, 충남 서천의 농가를 돌며 총 15회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흡친 농산물을 새벽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추석맞이 한옥마을 식품위생업소 특별지도점검

전주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한옥마을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전주시는 공무원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옥마을 내 식품위생업소 18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점검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영양업장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 상태 △납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참가자 모집

전주시가 오는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지역의 미래, 지역화'란 주제로 세계적인 지역화 운동단체인 로컬퓨처스(Local Futures 국제생태문화협회) 및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국제회의에는 '행복의 경제학'의 저자로 잘 알려진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Hodge)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30여명이 참가해 글로벌 경제에 따른 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또, 지역의 학계, 지자체 사례, 사회적 경제 현장전문가들이 모여 전주시의 비전을 위한 토론의 장

을 펼친다.

이와 관련, 로컬퓨처스는 상업적인 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미국 버클리, 호주 바이런베이 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를 7차례 개최했으며, 올해 국제회의는 이탈리아 피렌체와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오는 10월 7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콜레라, 1·2번 환자 유전형 동일

집단감염 가능성 높아

국내에서 15년만에 발생한 콜레라 환자 2명의 유전형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경남 거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번째 콜레라 환자 B(73·여)에 대해 콜레라균의 유전자지문(PFGE) 분석을 실시한 결과, 광주 거주 A(59)씨와 동일한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2명의 유전형이 동일한 것은 콜레라균이 거제 지역 사회에 상당수 넓게 분포됐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2명의 환자 검체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에 대한 전장유전체(Whole genome sequencing) 분석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동일 오염원 가능성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직까지 바닷물 오염을 통해 콜레라균 전파가 됐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매주 전국 11개 검역소 및 2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해양환경내 비브리오 콜레라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균이 검출된 적은 없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광범위한 해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시장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영·거제 시장에 대해서도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를 수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환자 2명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환자의 콜레라균 유전자지문분석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새로 해외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다만 보건당국이 국내 발생 콜레라균의 유전자형 데이터베이스 일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256건에 대한 유전자형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16건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이며, 나머지 40건은 국내에서 발견된 균들이다. /뉴시스

탄소융합기술원, 전문인력 양성

컨소시엄사업 일환 신규 교육생 10명 모집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이하 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채용연계형 인력양성 신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생 모집은 기술원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고용노동부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채용 예정자 과정 10명의 교육생을 모집 2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기술원은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탄소관련 기업에 취업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오는 9월 23일까지이며, 도내 거주하는 고졸 이상의 미취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술원은 지난 2013년부터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재직자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총 54개 과정의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해 20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해왔다. 특히, 지난해 신규채용자 교육은 전체 20명의 수료자 중 18명이 취업해 90%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기술원은 또 지난 5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15년도 컨소시엄 사업 평가'에서 전국 145개 기관 중 최 고등급기관에 선정돼 우수사례연수와 인센티브를 지원받기도 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생 모집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탄소전문인력을 지원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전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질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 및 교육신청 서류는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홈페이지(www.katech.re.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19-357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